

역대급 '영끌'에 5대은행 주택담보대출 7조 넘었다

지난달 29일까지 7.3조 늘어... 두 달째 유례없는 급증세 가계대출 8.3조 ↑ 위험수위... 은행권 대출 조이기 나서

금융당국 압박에 은행들이 일제히 대출금리를 올리고 한도를 줄여도 좀처럼 주택담보대출 중심의 역대급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거래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짧아도 두세 달 안에 가계대출 수요가 눈에 띄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문턱도 당분간 계속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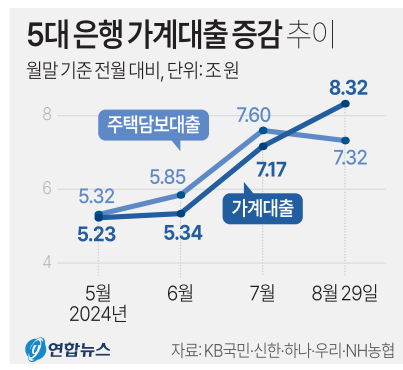
◇주담대 증가폭 두달째 7조원 넘어... 3년 전 영끌 광풍 웃돌아

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29일 기준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은 567조7359억원으로, 7월 말(569조7천501억원)보다 7조3천234억원 늘었다.

역대 월간 최대 증가 폭이었던 7월(+7조5천975억원)보다는 약 2천억원 적지만, 지난달 중순 이후 주요 은행들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중단, 주택담보대출 한도·만기 축소 등의 강한 대출 억제 조치가 쏟아진 사실을 고려하면 두 달째 유례가 없는 급증세가 이어진 셈이다.

더구나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실행(9월 1일)을 앞두고 30·31일 이른바 '막자' 수요가 몰렸다면, 8월 전체 5대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은 8조원 안팎으로 7월 기록을 경신했을 가능성도 있다.

신용대출도 29일 만에 8천202억원(102조6천689억→103조4천270억) 늘었다.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높아져 신용대출까지 최대한 끌어 쓰면서 3개월 만에 반등했다.

8월 전체 가계대출 증가 폭은 8조3천234억원(715조7천383억→724조617억)으로, 2021년 4월(+9조2천266억)을

이후 3년 4개월 만에 최대 기록을 세웠다. 가계대출 역시 남은 영업일 이틀(30·31일) 취급액까지 더해지면 9조원대에 이를 수도 있다.

2021년은 코로나19 사태로 시작된 0%대 기준금리(2020년 5월~2021년 11월 0.5~0.75%)를 바탕으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단이 2%대에 불과해 레버리지(차입) 투자가 한창이던 시기다.

결국 3년 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빚투(빚으로 투자) '광풍' 당시와 비교해 현재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 증가 속도가 비슷하거나 더 빠르다는 뜻이다.

◇우리도 KB·신한 이어 주담대 만기 30년으로 축소... 전세대출도 제한

따라서 당분간 은행권의 '가계대출 조이기'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자 입장에서 가장 타격이 큰 것은 주택담보대출 만기 축소와 전세자금

대출 취급 제한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줄어들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계산식에서 연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결국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우리는 오는 9월부터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실수요자 중심 가계부채 효율화 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이렇게 하면 DSR 상승으로 연소득 5천만원인 차주가 연 45%의 금리로 대출 대상을 전 세대인 모두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로 제한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3일부터 전세자금대출을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안에서만 취급한다.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 등 투기성 자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은 아예 중단된다.

한편, 다만 실수요자를 위한 전세 반환자금 용도의 주택담보대출은 예외로 취급된다.

앞서 KB국민은행도 지난달 29일부터 현재 최장 50년(만 34세 이하)인 주택담보대출 대출 기간을 수도권 소재 주택에 한해 30년으로 일괄 축소하고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한도를 물건별 1억원으로 줄였다.

이외에도 우리은행은 은행권 처음으로 오는 9월부터 당분간 무주택자에게만 전세자금대출을 내주기로 했다. 대출 대상을 전 세대인 모두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로 제한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3일부터 전세자금대출을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안에서만 취급한다.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 등 투기성 자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은 아예 중단된다. /연합뉴스

'반도체 호황' 11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지난달 수출 전년 대비 11.4% 증가... 반도체 역대 최대 실적

한국의 올해 8월 수출이 작년보다 11.4% 증가하면서 11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흐름이 이어졌다.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앞세운 반도체 수출은 120억달러에 육박하며 한국 전체 수출의 20% 이상을 담당했다.

세계적인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 속에 자동차 수출이 소폭 감소했으나 50억달러를 넘기며 '수출 효과' 역할을 이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8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반도체 팔고·자동차 밀고... '캐즘' 영향 전기차 수출 감소

8월 수출액은 579억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11.4% 증가했다. 이는 역대 8월 중 최대 수출 실적이다.

월간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 10월 플러스로 전환된 뒤 11개월 연속 같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15대 주력 수출품 중에서는 반도체 등 7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고, 자동차 등 8개 품목은 감소했다.

8월 반도체 수출액은 119억달러로 작년보다 38.8% 증가했다. 이는 역대 8월 중 최대 수출 실적이다.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지난 4월부터 4개월 연속 50% 이상을 유지한 데 이어 8월에도 40%에 가까운 증가율을 기록하며 한국 수출을 견인했다.

반도체에 이은 '수출 효과' 자동차의 8월 수출은 50억7천만달러로 작년보다 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전기차 캐즘 속에 8월 한국의 전기차 수출도 6억1천만달러로 작년 같은 달(12억2천만달러)과 비교해 반토막 났다.

◇중·美·韓 수출 '쌍끌이'... EU 수출 7개월만에 '플러스'

지역별로는 한국 수출의 양대 축인

대중·대미(對美) 수출 모두 10% 안팎의 증가세를 기록한 가운데 중국이 2개월 연속 한국의 최대 수출국 지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대중 수출은 작년보다 7.9% 증가한 113억5천만달러로 지난 3월 이후 6개월 연속 100억달러 이상 수출 기록을 이어갔다.

대미 수출도 11.1% 증가한 99억6천만달러로 역대 8월 중 최대를 기록하며 13개월 연속 월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8월 누적 흑자 306억달러로 6년 만에 최대

한국의 8월 수입액은 540억7천만달러로 작년 대비 6.0% 늘어났다.

석탄(-11.4%) 수입은 감소했으나 원유(30.1%)와 가스(5.7%) 수입이 늘어나면서 전체 에너지 수입이 17.3% 증가했고, 반도체, 석유제품 수출과 밀접한 반도체(19.0%), 납사(19.5%) 등의 수입이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8월 무역수지는 38억3천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월간 무역수지는 작년 6월 이후 15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올해 1~8월 누적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306억달러로, 지난 2018년(448억달러)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착한마을 야시장 '복적' 광주 서구가 지난달 30일 풍암동 일대에서 '걷기 좋은 소풍 테마길'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한 '착한마을 야시장'이 주민들로 붐비고 있다. 이날 야시장은 착한가게 23곳이 참여했다. <광주서구청 제공>

올해 세수결손 30조 웃돌듯... 2년 연속 세수 위기

올해 세수 결손이 30조원을 웃돌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알려졌다.

10조~20조원 부족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치를 뛰어넘는 규모로, 역대 최대인 50조원대 '세수 핑크'가 발생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위기다.

정부는 기금 여유자금, 자연 불용(不用) 등으로 최대한 부족분을 메우겠다는 입장이지만, 재원확보 작업이 만만

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올해 세수 부족분이 30조원을 웃돌 가능성이 열려두고 막바지 '세수 재추경'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까지 국제수입은 208조8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조8천억원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연간 국제수입 예산(367조3천억원)이 지난해 실적보다 2조2천억원 많은 규모로 짜였지만, 실제로는 9조원가량 덜 걷힌 셈이다.

1~7월 실적만 단순 적용한다면 32조원이 부족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연말까지 남은 5개월의 세수를 예산하기는 이르지만, 극적인 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기류다. /연합뉴스

로또복권 (제 1135 회)

등위	당첨금	당첨번호
당첨번호 1 6 13 19 21 33 / 보너스 4		
1등	2,953,726,125	6개 숫자 일치
2등	48,687,794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3등	1,296,632	5개 숫자 일치
4등	50,000	4개 숫자 일치
5등	5,000	3개 숫자 일치

방수제·바닥재·혼화제·천연 황토 코팅제 건물 보수제 전문 생산업체

아직까지 방수로 고민하십니까? 기술이 필요없습니다.

방수! 바닥! 직접 공사하세요!

적용현장 및 시공범위

옥상, 외벽, 지하실, 공장바닥, 주차장, 흙집, 물탱크, 양어장, 수영장, 화장실 타일, 기와집, 내구성 및 평활성을 요구하는 현장, 기타 방수를 요하는 모든 건축물

생산 품목

[DK-301] 강력접착 도막 방수제 / 드림탄²
 [DK-303] 상도코팅방수제(녹색, 회색)셀프탄
 [DK-305] 무색침투도막방수제 / 드림데칼³
 [DK-307] 균열 보수제 / 다막스
 [DK-306] 수용성 투명 발수제 / 탑코팅
 [DK-308] 천연황토코팅제 / 황토리
 [DK-5000] 광택증진&오염방지코팅제 / 오염스톱

특징

- 빗물은 막고 습기는 내보낸다
- 기술이 필요없다
- 숨을 쉬기 때문에 들뜨지 않는다
- 경제적이다
- 무독성 무기질 친환경 방수제다
- 습윤상태에서도 할 수 있다
- 미끄럼, 방지기능을 한다
- 옥실 및 화장실 타일을 뜯지 않고도 할 수 있다
- 특히 인증 신기술 공법이다
- 소비자가 인정했다

※전화 문의시 방수·바닥재 관련 책자를 보내 드립니다. (제품 구입시 시외 지역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시중에 검증받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례가 있다고 있습니다. 드림케미칼 코리아는 특허 인증 품질 보증업체입니다.

특허청

DRUM

드림케미칼코리아
DREAMCHEMICALKOREA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담보, 무보증)
문의 : 080-362-7788
www.dreamchemicalkorea.com